

여수국가산단에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와 협약
2026년까지 3130억원 투입
스팀 162만·전기 18만MWh 생산



여수시가 전남도·기업과 손잡고 여수국가산단 내 집단에너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전남도·기업과 손잡고 여수국가산단 내 집단에너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도·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주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내 집단에너지시설 신설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변용만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주) 대표이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투자협약서에 각자 서명한 후 서면으로 제출했다.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주)는 지난해 4월 28일 ㈜LG화학과 GS EPS(주)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주)는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130억원을 투입해 여수국가산단 내에 연간 스팀 162만 및 전기 18만MWh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우드칩)를 연

료 사용, 산단 내 수요처에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건설 및 협력사 등 1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투자가 여수국가산단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친환경 산단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

구글·네이버 검색 포인트 환산
제주·부산·경주 큰 차이로 제쳐

순천시가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 빅데이터 분석 트렌드 랭킹 서비스인 '랭킹파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구글 트렌드지수·네이버 검색량 등을 포인트로 환산한 결과, 순천이 1만3921포인트를 획득해 이전 순위인 16위의 2769포인트 보다 무려 402%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국내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7644포인트)를 비롯해 부산(6693포인트)·경주(5142포인트)를 큰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는 점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순천을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한 연령대별 선호도를 보면 가장 높은 20대의 29%에 이어 30대(27%), 40대(19%), 50대(15%), 10대(10%)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20·3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이유는 최근 제8회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9월

27일~29일)의 성공 개최와 다양한 관광명소 등이 젊은 층의 주목을 끌어 여행지로서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로컬음식과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에게 사랑받았으며, 올해는 특히 SNS를 통해 20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대표 관광명소인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선암사·송광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젊은 층의 여행 수요를 충족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조사에서 여수는 순천·제주도·부산·경주·대전·대구·청주·강릉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여행지로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기차마을 주말 '버스킹 페스티벌'

다음달 23일까지...공모 통해 17개팀 선정, 매주 2개팀 공연



곡성군이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가을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린 버스킹 모습.

곡성 '가을 버스킹 페스티벌'이 매주 주말마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펼쳐진다. 곡성군은 관광객들에게 여유롭고 낭만적인 가을의 정취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버스킹 페스티벌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보컬·통기타·밴드·악기 공연·미술 및 서커스·성악 부문 총 17개 팀이 참여해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시와 오후 2시에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이로써 버스킹 페스티벌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흥미로운 문화체험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섬진강기차마을은 버스킹 공연과 함께 이달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키지컬100'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지컬100'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력 쉼터 프로그램으로, 오래매달리기·양궁·풍선 펌핑 등 다양한 종목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곡성군 관광과(061-360-8445)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농업인 미디어 교육공간인 창농미디어센터가 지난달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광양시 창농미디어센터 문 열었다

농·특산물 홍보·미디어 교육

광양 농업인들이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창농미디어센터(이하 센터)'의 지난달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의회 의장·농업인 단체장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센터는 서천면 광양시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52.24㎡의 2층 규모이다. 1층에는 체험농장 운영·농특산물 홍보·농업인 소통 공간으로 창농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미

교육실과 미디어창작실(촬영·편집실)을 두고 있다. 센터에는 사진·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위해 카메라·프롭터·액션캠·편집용 PC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센터는 크리에이터(제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창작물(사진·영상 등)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이 진행된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들은 센터 미디어창작실에서 크리에이터(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센터의 교육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된 농업인들이 본인이 경작한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판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2년 연속 대상

구례군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남도음식 경연대회 부문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례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명실상부한 맛의 고장의 명예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구례군은 군의 대표 식재료인 속부쟁이와 초피를 사용한 속부쟁이 자반·초피 육포·초피 장아찌를 선보였고, 구례산 각종 산나물을

가지고 약초버섯전골·약초삼계탕·더덕정과 등을 요리해 전시했다. 시군 대표 음식 및 특산물 판매 장터에서는 면이 퍼지지 않고 쫄깃한 '구례밀 냉풍국수'와 달지 않고 새콤한 맛의 '구례 산수유 양갱'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속부쟁이 나물과 각종 장아찌를 활용해 만든 김밥은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